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문영숙
독립운동가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9〉 양치혜의 도현(군수)로 거듭나다

이렇게 러시아에 능통한 인물들이 조선 궁궐의 부름을 받을 때, 최재형도 조선에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당시 최재형 만큼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통역을 하는 사람에 없었다는 것은 앞 뒤 정황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치혜 도현에 막 임명되었던 최재형은 몇 번에 걸친 고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현에 충실했다.

박환 교수 저서인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에는 최재형이 순국한 후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내용이 실려 있다.

리태왕 전하께서 을미년에로국 영사관으로 파천하신 후 널리 노만 국경에 정통한 인재를 기르실 제 최씨가 뽑히어서 하루 빨리 귀국하여 국사를 도우라는 조서가 수차례나 내려왔으나 무슨 생각이 있었던지 굳게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동아일보〉 1920년 5월 2일자

위의 기사를 보면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리태왕 전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리태왕 전하는 당시 고종황제였으니,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로 비추어보면 조선에서 호적도 갖지 못한 노비의 아들인 최재형이 몇 번에 걸친 고종의 부름에 응한다면 대단한 벼슬을 거머쥐게 되는 절호의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아들로 하루아침에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설사 노비출신이 아닌 양반의 신분이라도 조선의 황제가 부르는 데 어디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최재형은 고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최재형은 바로 다음 해, 제1차 전 러시아 읍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알레산더 3세의 연설을 듣게 된다.

최재형은 러시아 전체에서 한인을 대표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것이다. 그 후에도 1896년 5월 13일, 최재형은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니꼴라이 2세 대관식에, 한인대표로 참가하여 황제가 직접 하사하는 예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광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서 최고로 영예로운 일이었다. 이때 최재형은 또 러시아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최재형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고 한인사회에서는 점점 신망과 존경이 높아졌다.

최재형은 도현의 자리에서 공무를 보면서 한인 교육에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무렵 러시아에서는 각 지방에서 학교를 건립하여 재려 한인 동포들에게 러시아화 정책을 폐기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한인들에게 러시아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이주 초기에는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문교육을 시키거나 학교에 보내는 대신 일을 더 중요시했다.

최재형이 도현이 된 후에도 한인들의 교육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재형은 러시아 정교회 학교의 초기 학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식 생활방식에 밝았고, 러시아에서 살아가려면 러시아 교육이 필수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따라서 최재형은 한인 동포들에게 러시아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속-

〈참고서적〉
박환 교수의 <시베리아 한인 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문영숙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리채윤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9회)

리 채 윤
도서출판 작가교실 대표

자중자애했던 어머니 이씨 부인

에는 신중을 기하였지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과단성이 있었다. 약간 학문을 알아 <삼강행실>을 구송하였으며 문장으로써 학문을 삼지 않았다.

율곡 이이, 「이씨감천기」

못한 율곡은 하산을 하는데, 한양집이 아니라 오죽헌 외할머니 댁으로 가서 그 유명한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다듬었다.

말하자면 외할머니는 스승과도 같았던 어머니 신사임당을 너무나도 일찍 잃은 율곡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존재였다. 다시 율곡의 글을 보자.

외조모는 올해 나아가 아흔으로 사실 날이 멀지 않았고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습니다. 몸은 벼슬에 매여 있어 찾아가 뵈길이 없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명하신다면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이유로 (무진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급히 강릉으로 돌아와 간병하며 애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외조모님은 거동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력을 근근이 부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타계하시어 다시 회생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차마 결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리임진정소(辭校理仍陳情疏)」

그 해 11월에 율곡은 이조좌랑이라는 대단한 벼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외조모 병구완을 하겠다고 강릉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워낙 연로하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만다. 율곡은 외할머니의 영전에 이런 애끓는 제문을 올린다.

아버지 되시지 못한 슬픔 속에
오직 할머님 한 분 밟들어
자나깨나 마음속에 계시옵더니
이제 또한 저마저 버리시옵나이까

율곡이 외할머니께 품었던 정이 마디마다에 넘쳐 있다. 유품과 외할머니의 특별한 유대는 이씨 부인이 남긴 <분재기(分財記)>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수진방에 있는 기와집 한 채와 노비 및 전답을 유품에게 상속했다.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관리'가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인재관은 부친인 효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인재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다.

이병철 회장은 평소 '일년의 계(計)'는 곡물을 심는데 있고, 십년의 계는 나무를 심는데 있으며, 백년의 계는 사람을 심는데 있다'는 동양 격언을 자주 인용하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가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였다. 갑자기 과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라고 하더니 일본 NHK방송에서 방영한 '비단 잉어사' 비디오를

틀어 주었다. 일본최고 품질의 한

마리 비단잉어를 키우기 위한 비단

잉어 조련사 마노씨의 대단한 집념

어린 타쿠멘트 프로그램이었다. 마

노씨는 색깔이 다른 잉어와 계속 돌

연변이를 일으켜 흥·백·흑 3색이

조화된 화려한 잉어를 탄생시켰다.

500만 마리의 치어 중 4.5년 후 품

평회에 출품하는 잉어는 고작 4~5

마리 뿐이었다. 대략 100만 마리 중

한 마리가 선택되는 것이다.

그 한 마리를 위해 나머지 99만 9

천 9백 99마리는 버려졌다.

"좋은 잉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쌍하다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마노씨는 말했다. 비단 잉어사의 이러한 집념과 끈기를 보면서 한 마리의

비단 잉어가 탄생되는데도 이럴진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한 사람의 훌륭

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와 같

은 이치임을 깨닫게 했다.

이건희 회장의 인사철학은 '의인 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였다. 중국의 사서 중 하나인 송사(宋史)에 나온 말로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말 것이며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는 뜻이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건희 회장은 실패했다고 사람을 버리면 인재를 잃는다고 생각했다.

신경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이건희 회장은 어느 날 시장단회의에서 갑자기 '삼성이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실행시켜야 할지를 물었다. 사장들간에 격론이 한참 벌어졌다. 어느 사장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고, 어떤 사장은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던 이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해답은 딴 아님 인재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랜 전부터 5~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이나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찾아내고 키우자는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현재경영론'은 바로 그것이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땅도 좁고 시장도 작으며 자본도 적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인재에 있으며

그게 강력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지역전문가' 제도 또한 이건희 회장의 의지의 산물이다. 이건희 회장은 취업하자마자 지역 전문가 제도를 추진하려 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쳐 잠시 접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전문가 1인당 급여를 포함하여 많게는 2억 원씩 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삼성전자의 이익은 1천 억원이 안 되었고 그룹전체의 이익도 3천 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신경영 이후 속도를 낸 지역전문가는 2020년까지 약 6천여 명이 68개 국에 파견되어 육성되었다. 비용으로만 따져도 1조가 넘는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을 만든 배후에는 이들 지역전문가들의 역할과 공이 컸다.

이 회장은 신경영 이후 채용방식도 혁신인재 위주로 바꾸면서 이병철 회장의 브랜드였던 관상면접도 없앴다. 그리고 인사제도도 연공주의에서 성과주의로 과감하게 바꾸었다. GE 같은 서구식의 강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성과주의를 시행하면서 세계적인 핵심 우수인재를 끌어 모았다.

이 회장은 신경영 이후 새로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전쟁의 시대에는 결국 뛰어난 인재, 창조적인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천재와 우수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게 나의 신념입니다."

CTN 문학관

오헤림 시인, '그대 이름은 꽃이다' 발간

가 재 산
2층1호 문학연구원 원장

교원들에게 독서와 논술 강의를 하고 있다며 "고귀한 교직의 마무리로 은퇴를 한 이후에도 학교기관에서 글쓰기 교사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으로 학교에 나가 아동들을 만나 글쓰기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대 이름은 꽃이다"라는 주제는 참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꽃'으로 칭하고 있다며 "누가 자기를 부를 때 '꽃'이라고 부르면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오시인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꽃으로 불러주었다.

오헤림 시인은 공주교육대학원 교육상담학과를 전공하고 교육청 주최 백일장 우수지도교사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행복한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했다.

현재 독서와 논술 교원 연수강사 이자 중등 자유학기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시사문단, 대전기타리문학회, 문학사랑협의회, 대전글마중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대 이름은 꽃이다』는 오늘의 문학사 출판, 값 10,000원 / 김현기자